

고려대 문과대학 '디지털인문센터' 개소.. 전임 인력 육성해 융합연구 지원, '확장된 인문학 교육 시스템' 구축

임 정우식 기자 | 승인 2022.08.11 14:02

디지털 전환시대, 디지털과 인문학 협력과 상생의 길 모색한다.

[베리타스알파=정우식 기자] 고려대는 이달 10일 고려대 문과대학에서 디지털인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11일 전했다. 문과대학 디지털인문센터는 4차산업혁명과 학생들의 높은 디지털 교육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교과와 비교과 과정을 강화하고자 설립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해 디지털 인문학 전담 교강사를 배양하고 융합연구를 지원해 더욱 확장된 인문학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인문센터는 학과별 1인 이상의 디지털 인문학 전담 교강사를 배양하고 교양필수로 개설한 '디지털 인문학 입문' I, II 교과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문가 특강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비교과 과정도 충실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정진택 총장은 축사를 통해 "과학기술과 인문학은 서로 분절된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미래가치를 창출해야 할 협력의 대상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인문센터의 출범은 인문학과 첨단과학 기술의 협업과 융합을 실천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디지털인문센터가 디지털과 인문학의 협력과 상생의 길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허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인문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분야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가진 혁신 인재 육성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훈 문과대학 기획부학장 겸 인문융합연구원장은 "이번 개소에 많은 분들이 힘이 돼 주셨다. 앞으로 센터가 많은 발전을 하는 것이 이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일 것"이라며 이번 센터 설립을 통해 학생들이 인문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분야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역량을 쌓도록 해, 협업과 융합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했다.

개소식 부대행사로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전봉관 교수가 '디지털 전환시대의 학문융합'을 주제로 기념강연을 가졌다. 전 교수는 "인간-사회-예술 분야에 대한 디지털 분석역량을 갖춘 인문융합 공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디지털 인문센터가 이런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며 센터의 역할을 주문했다.



고려대 문과대학 '디지털인문센터' 개소.. 전임 인력 육성해 융합연구 지원, '확장된 인문학 교육 시스템' 구축. /사진=고려대 제공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우식 기자